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



이병재 | 남원문화원 원장

국민 소득이 만달러를 넘어 기본적 생계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국민들은 더 나은 단계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축제 행사가 마치 소득사업인양 경쟁적으로 치르다보니 문화란 단어가 전국도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산업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미 선진국과 강대국들은 자국의 전통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신중하게 이를 정리 정돈하고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화 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으며 미래 소득사업의 핵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대학에서도 전통 문화 콘텐츠 사업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연구에 몰두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문화와 예술이 여러 가지면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예술은 눈앞에 보이는 생산성은 없지만 인간의 감성을 움직여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것인만큼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가의 생애와 예술적 영향이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 준다는 자명한

이치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문화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우선 문화는 나의 좋은 취미(culture as a good taste)라고 아주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흔히 문화인이라고 하면 훌륭한 예술을 알고 오페라 구경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문화는 호화스럽고 값비싼 관습들이나 취미생활을 가르키는 말로 쓰인다.

그런가하면 문화라는 말은 어느 한 사회와 그 사회에 관련된 모든 것(culture as everything)이라도 아주 넓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프랑스 문화나 서구 문화 또는 '청년 문화'나 '군대 문화'라는 식의 말을 할 때처럼 문화도 그 사회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문화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은 취미'나 '모든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가치 체계(culture as knowledge and belief systems)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곧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 신념, 예술, 도덕법, 관습 따위를 포함하는 복합체가 문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과 도구에 의해 이루어 놓은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원시문화는 물론 후진국의 비문명적 문화도 이에 포함된다고 했으므로 문화를 어떻게 정의 하든 중요한 사실은 문화가 우리 행위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문화를 연구하므로써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문화라는 말처럼 우리가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는 낱말도 드물 것이다. 선진국을 일컫는 문화대국에서부터 정치 문화, 생활 문화, 교통 문화 심지어는 화장실, 청바지 문화라는 말까지 별의 별 문화가 다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기대는 아마도 보다 여유롭고 아름다운 삶, 즉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 문화에 있지 않나 싶다.

이제 웬만한 주거단지에는 백화점같은 시장과 유통단지 그리고 주차공간이 필수적이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소위 주거 문화의 기본적 문화 인프라 갖추기다.

이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영화관이 있고 공연장이 있으며 전시공간 즉, 예술적 인프라를 헤아리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도 이제 이런 유권자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동참한바 있어 다행이다.

문화 인프라의 기반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인이 되는 일은 국민 스스로의 몫이다. 예술이 그 중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전유물인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예술에 대한 안목은 하루 아침에 갖추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회에도 자주가 보고, 미술전시회에 초청장을 받고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가들의 작품도 몇 점 소장할 수 있는 배려도 있어야하고 문화예술인들과 교감도 갖고 그들의 생각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며 전국 자치단체마다 있는 지방 문화원과도 긴밀히 연락하여 지역문화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여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 개인의 문화지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문화와 비문화, 순수예술과 실험예술, 예술인과 예술거간꾼을 구별하는 나름의 식견도 생길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문화인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7건(①석굴암 불국사 ②해인사 장경 판,전 ③종묘 ④창덕궁 ⑤수원화성 ⑥경주역사 유적지구 ⑦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 세계기록유산 4건(①훈민정음 ②조선왕조실록 ③직지심체요절(하권) ④승정원일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3건(①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②판소리 ③강릉단오제)등이 정식 등록되어 있다.

세계유산이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3종류가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각 나라가 주요 문서, 필사본, 구비전승자료, 시청각 자료 등 도서관, 문서고 등에 보관된 세계적 보존가치가 있는 값진 기록물을 말한다.

세계무형 유산이란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의식, 공예 등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외에도 잠정목록에 삼년산성, 공주 무령왕릉, 강진 도요지, 안동 하회마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월성 양동마을,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등 8건이 올라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형태인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의 거울이다.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살펴볼 때 선사시대의 고인돌 유적은 당시의 문화상과 정신세계를 가늠할 수 있고 1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독특한 형태로 표현된 기념비적 유적의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8세기 때의 세계적인 예술품 석굴암, 불국사유산, 13세기 불교의 삼장을 집대성한 세계적인 문헌인 장경판. 전. 14세기의 종묘, 15세기의 창덕궁 등의 조형 건축사, 18세기말 세계 성곽 축성사의 걸작 등 세계유산과 14세기 초 금속활자의 인쇄에 의한 기록유산, 15세기 초 세계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훈민정음 창제, 5백여 년간의 한 창조의 실록 등은 찬란한 문화가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 거울이다.

한편 무형유산은 우리 과거의 삶의 그림자이며 대변자이다. 지역 계층간 다양한 문화를 그리며 웅변한다. 이는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는 원천이기도 하다. 몽고의 침략(1238-경주 황룡사 방화), 임진왜란(1592-왜병들이 자행한 각

궁궐 등 중요 문화재에 방화)으로 경향각지에서 빼앗기고 도난당한 우리의 문화재 수가 74,434 점이나 되며 46%가 일본에 있다고 하니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혼, 사상과 지혜, 예술로 많은 세계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 논리에 밀려 가치를 상실한 채 방치돼 있고 훼손돼가는 모든 문화재를 우리는 지금이라도 발굴복원 및 전승보존을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서서 지혜를 모아야 할때이다. 국력은 문화의 힘으로 길러야 하므로 호국 불교사찰 실상사를 비롯 지리산과 춘향제(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충의정신)를 세계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동시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 백두대간기념박물관 건립등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약력

본회 이사겸 지리산북부지회장

